

01 교회소식

“감사해요, 나의 주님~”

금요철야예배 은사집회를 통해 오랜 질병과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

02 생명의 말씀

‘가나안 정복사’ 시리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함,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

03 사랑의 메시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음을 믿기에 그릇에 순종한다.

04 간증

내 삶의 반전의 역사

주님의 은혜로 다제 내성 결핵과 임파선 결핵을 치료받고, 시력이 좋아져 안경을 벗게 된 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23호 2020년 7월 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트라우마, 석회화 건염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김소담 집사 (47세, 2대대 19교구)

왕년에 대형학원에서 인기 있는 영어 강사였던 저는 동료 강사의 시기 질투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봐도 역효과가 났고, 여러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후로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지요.

2월 18일(화), 교구에서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 초청 기도회’가 있었는데, 원장님이 기도해 주실 때 “마음에 어둠이 있어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품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예전 일들이 떠오르고 그것이 마음에 어둠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지요. 이와 더불어 ‘주님이 계시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오면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2월 22일(토), 왼쪽 어깨에 뼈근함을 느꼈습니다. 괜 찮아지는 듯하다가 화요일 밤부터 왼팔이 올라가지 않고 통증이 심했지요. 병원에서는 “왼쪽 어깨에 1.4cm의 석회화 급성으로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극심한 통증을 견디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2월 28일(금), 은사집회에서 설교를 듣는 동안 통증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이수진 목사님이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실 때 통증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지요. 할렐루야!

나 자신도 알지 못했던 마음의 병은 물론 육체의 질병까지 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사랑과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성질환을 치료받아 제 인생의 봄날이 왔네요

조영순 집사 (35세, 5청년선교회)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데다 손발이 차고 소화도 잘 안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유명한 의사들에게 데리고 가 치료도 받아 보았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시리고 저려서 한참을 주물러야 했고, 잠을 잘 때는 양말을 두 겹씩 신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리를 만져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기나 과자류는 잘 먹지 못했고, 유제품을 먹으면 바로 위장이 뒤틀려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한번 체하면 숨도 쉬기 어려웠고 탈진 상태가 되었는데, 이런 일은 어느덧 저의 일상이 돼버렸지요.

올해 초, 이런 제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월 31일에 열릴 은사집회를 앞두고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동안 신앙적으로 안주하려 했던 마음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성령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은사집회 당일에는 손이 아주 따뜻해지며 유례 없이 손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지요. 이뿐 아니라 감사 이수진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발에도 핫팩을 붙인 것처럼 뜨거운 기운이 맴돌다가 무릎까지 올라오기를 반복하며 저리는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얼었던 몸이 다 풀리는 듯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발은 따뜻해져 수족냉증이 사라졌고, 소화 기능까지 회복돼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변비도 없어졌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건강, 새로운 삶으로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노안과 30년 된 편두통의 고통에서 해방됐어요

김향 집사 (51세, 중국 1교구)

4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노안이 시작됐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글씨가 아른아른하고 두 줄로 겹쳐 보여 너무 불편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눈이 따끔거리고 통증이 있어서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저를 괴롭히는 것은 30년이 넘게 시달리고 있는 편두통이었습니다. 위에서 짓누르는 것처럼 머리가 늘 아파서 얼굴을 찡그리고 살았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 짜증스럽게 대할 때가 많았지요.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니 고통이 늘 따랐습니다.

올해 초, 은사집회 소식을 듣고 노안을 치료받고자 작정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편두통은 너무 오랫동안 아파왔기 때문에 삶의 일부분처럼 돼버려 치료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월 31일 은사집회 시, 이수진 목사님이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실 때 제 몸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눈에 바람이 싹 불어오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지더니 눈의 따갑던 증상이 사라지고 앞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머릿속도 맑고 개운해져 30년 된 편두통까지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요즘은 눈이 편안하고 정신도 맑으니 사람들은 제게 “얼굴이 밝아졌네요”라고 말합니다. 또 월급까지 20% 인상되는 축복을 받아 너무도 행복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왼쪽부터 김소담, 조영순, 김향 집사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하느니라

“...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6~9)



당회장 이재록 목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지만 끝내 영적인 믿음을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얻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내보이지 못한 징계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후손들 곧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믿음을 갖게 되는 영적인 훈련 기간이기도 했지요.

결국 애굽을 떠난 백성들의 1세대는 광야에서 유리하는 동안 모두 죽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렘만이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이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 놓고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1.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모세

모세는 마치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자녀들을 염려하듯이 자신이 생을 마감한 후에도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의 큰 과업을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설교를 중심으로 한 율법 교육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축복의 통로이자 가장 근본적인 본분을 깨우쳐 주고자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기본 도리를 설명한 생활 지침서이자 안내서라 할 수 있지요. 그 핵심은 바로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 5:32~33, 28:1).

신명기 곳곳에 수없이 반복된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리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결코 백성들을 두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지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라 하신 대로 오히려 참된 행복의 길을 알려 주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원수 마귀 사단 곧 어둠의 세력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권세 아래 속해 있어서 온갖 시험 환난으로 고통을 받게 되지요. 따라서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어둠에서 떠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말씀한 것처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므로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을 가져다주어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지켜 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지키 것을 수없이 당부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 동편의 모압에서 모세는 120년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쳤습니다. 모세의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2.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맹세하는 출애굽 2세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 그를 대신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열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로서 늘 곁에서 붙좃았으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간 금식할 때도 가까운 곳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림자와 같이 따랐지요. 또한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가까이했습니다(출 33:11).

이처럼 변함없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를

신뢰하여 함께했던 여호수아였기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선택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위대한 지도자였던 스승이 더 이상 곁에 없으며, 스승의 사명과 책임을 자신이 대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한편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40년간 모세 곁에 있으면서 그의 눈물과 고뇌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면서 수많은 백성을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 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강한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십니다. 단,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지요(수 1:5~8).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1세대와는 달랐습니다. 40년간 애굽이라는 이방 문화 속에서 나고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희미해지고, 억압과 학대 속에 많은 악이 심어진 부모의 세대와는 달리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 받고, 무수한 권능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부모 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는지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세우신 지도자 앞에 참된 믿음으로 순종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수한 역사를 체험하고도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한 부모 세대와는 달리 여호수아에게 전폭적으로 순종할 것을 맹세하지요(수 1:17~18).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물론 모든 백성까지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친 것입니다.

3.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어 축복받은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점령해야 할 곳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있다 해서 무턱대고 여리고로 진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여리고 성의 성벽이 어떠한지, 군사력은 어느 정도이고 그들의 사기는 어떠한지 등을 알기 위해 여호수아는 싯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 보냅니다.

여리고는 일반 성과는 달리 내성과 외성 두 겹의 성벽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독서 시 **우송료**만은 정가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으로 된 금성철벽처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에 대비해 여느 때보다 경계를 강화했지요. 그리고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여리고 왕은 군인들을 동원해 수색하니 두 정탐꾼은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인 기생 라합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정탐꾼들이 묵고 있는 집의 주인이었지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라는 낮은 신분이었지만 왕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수 2:9-11).

비록 라합은 이방 여인이지만 심성이 곱고 선하였기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며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 그때 자신이 정탐꾼들을 살려 준 것처럼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 달라고 청하였지요.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이러한 라합에 대해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택한 것은 어느 민족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전해들을 때에 정녕 상천하지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4.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두 정탐꾼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성을 빠져나온 정탐꾼들은 수색자들을 피하여 사흘 동안 산으로 숨었다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고백이 아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수 2:24)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열 명의 정탐꾼과는 너무나 상반된 고백이었지요.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아무리 불통한 일도 형통하게 되니 결코 “안된다, 힘들다”는 부정적인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함,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잠언 18장 20~21절에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했지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의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을 냄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고 믿음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모세를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무수히 보았으나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이들과 같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는 그마음이 선과 사랑 자체이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일생 동안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느껴 보았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마음에 가득한 선과 사랑을 늘 표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간증들이 바로 그 증거이지요.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헤아리는 사람은 어떤 시험과 환난, 힘들어 온다 해도 변함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선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니 중심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으심을 믿습니다.
가령, 어떤 일을 이름에 있어서 육이라는 한계를 가진 사람은 보통 A라는 한 가지 길밖에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A보다 더 탁월한 B, C, D라는 길까지 꿰뚫어 보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이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해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연륜이 쌓일수록, 점점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마음까지 높아져서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안다 하며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으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음성을 들어나가야 합니다.

Thank You!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보다 크심을 진정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순종하지요.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과 축복, 형통함의 순종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사랑이 깨달아지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결핵으로 죽어가던 제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수만트 쿠마르 성도 (25세, 인도 비하르 지역)

저는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어느덧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제게 2015년 12월,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목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하루 종일 잠만 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현기증이 느껴져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다제 내성 결핵(일반적으로 결핵의 치료 기간은 6개월 정도이지만 다제 내성 결핵은 최소 18개월이며, 치료 성공률도 떨어져 치료가 어려운 질병)과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몸 곳곳에 결핵균이 퍼져있었고 몸은 점점 파리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2019년 1월, 유튜브에서 'GCNTV HINDI' 채널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 영상을 발견한 저는 거기에 든 인도 델리만민교회 연락처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일꾼은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 시리즈 영상을 파일로 보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특히,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되었지요.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꾸준히 들으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인 2월 22일에는 'GCNTV HINDI' 채널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은사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강사 이수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제 머리에 주님의 손이 얹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놀랍게도 제 몸이 가벼워졌고 모든 통증과 어지럼증이 사라졌으며, 식욕도 되찾게 되었지요.

그리고 녀 달 뒤인 6월 병원 검사 결과, 다제 내성 결핵과 임파선 결핵이 깨끗이 치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세 살인 제 둘째 딸 디베카는 치아 4개가 썩어 고름이 흘렀습니다. 의사는 그 치아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지만, 매일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았더니 깨끗이 치료되었지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화를 잘 내고 다투기를 잘하던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 마음이 늘 평안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뿐 아니라 하는 일들도 잘 풀려 지금은 문구용 노트 제조회사를 개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제가 치료받는 모습을 지켜본 가족도 개종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중한 질병으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치료받기 전과 후



“몽골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안경을 벗게 됐어요!”

벌어진 자매 (17세, 몽골만민교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는데, 멀리 있는 글씨를 잘 읽지 못해 3년 전부터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습니다. 색깔과 모양만 겨우 알 아볼 정도로 시력은 계속 떨어졌고, 결국 작년 7월에는 알이 두꺼운 안경을 착용해야만 했지요. 그런데 안경을 착용해도 글자를 읽을 때 제대로 보이지 않아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던 작년 8월, 저는 한국에서 열린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국의 여름 날씨는 무덥다고 하는데, 수련회장은 시원한 날씨로 역사해 주시고 잠자리 떼를 보내주시어 모기와 상관없이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지요. 이로 인해 몽골에 돌아온 뒤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저는 만민중앙교회에서 은사집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제 시력을 꼭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사모함으로 은사집회를 준비 하였지요. 먼저 가족과 화평하지 못했던 분아들과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열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 뒤 1월 31일, 이곳에서 GCN방송을 통해 은사집회에 참석한 저는 이수진 목사님이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실 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성령의 불이 임해 제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동을 입어 눈물을 많이 흘렸지요. 그러던 중 제 시력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어 기도가 마쳐진 뒤 확인해 보니 글씨든 숫자든 너무나 잘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는 두꺼운 안경을 벗게 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여 글도 잘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지요.

이후 저는 각종 예배와 기도회에 더욱 열심히 참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고자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999-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암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동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